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04)(10/2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5 장 본성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3-4 절

벵후 1:21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엡 5:25-27 -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시 67:1-2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나의 하나님이며, 그런 까닭에, 나는 주의 계명이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서, 속사람으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온갖 죄악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이성이나 정욕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정작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자주 선한 일을 하려고 수도 없이 계획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도와 줄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가벼운 저항에 부딪히기만 하여도, 나는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고,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행하여야 하는지도 내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만,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의 무게에 짓눌려서, 좀 더 완전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4. 주여,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하는 데에도,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데에도, 그리고 마침내 그 선한 일을 완성하는 데에도, 내게는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15:5),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은혜여,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신의 공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뛰어난 솜씨나 부, 아름다움이나 용맹함, 타고난 재능이나 탁월한 언변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본성을 따라 타고난 것들은 선한 자들에게나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은혜나 사랑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이고, 그러한 은사가 주어진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예언의 은사나 이적을 행하는 은사나 그 어떤 깊은 비밀도 다 꿰뚫어 보는 은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 없이는, 그러한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릴 정도로, 이 은혜는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이나 소망이나 그 어떤 다른 미덕도, 사랑과 은혜 없이는 주께 열납될 수 없습니다(고전 13:13).

말씀과 해설: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의 주인이시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이며, 우리는 듣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 성령은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가 되신다. 딤후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벵후 1:21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의 주인되시며,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신다. 시 119 편 저자는,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눅 24:25) 하셨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요 14:17, 26 -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엡 5:25-27 -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변해 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마 13 장에서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셨다(마 13:8). 예수님은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마 13:23) 그러한 결과를 내었다고 말씀하셨다. 좋은 땅이 결실하는 모습을 목상할 때, 잘 듣고, 잘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그 말씀이 땅에 잘 뿌리 내리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이 좋은 마음 밭에 잘 뿌리 내리는 것을 말씀의 내면화로 말할 수 있다. 주의 백성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며, 마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 자체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정착하고 작용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내면화 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님은 말씀의 내면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셔서 그의 내면과 함께 걸음으로 드러나는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 아울러 그의 삶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다.

은혜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자신이 가진 능력, 재능, 은사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히 4:16 -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 67:1-2 -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나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말씀의 내면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 놓으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영무(남아공화국), 박재덕(탄자니아), 박종국, 이기형(에티오피아), 양광균(가나), 최인호(케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